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2~26)

불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온다



백곰이 나타나 갑자기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없어. 어두워서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와.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 급히 전화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 그러니 꿈에게 물려 다치고, 넘어져 아프고, 도적맞고, 가난하고, 일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이 인생의 답이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쌍권총은 찔는데 실탄이 없는 자, 지갑은 명품인데 돈은 하나도 없는 자, 차는 좋은데 기름이 바닥난 자, 최신형 핸드폰이건만 배터리가 없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빗대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사실 말입니다.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며 품은 있는 대로 다잡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령을 못 받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 여러분,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고, 곰탕 속에 곰이 없어도 곰탕입니다만, 심령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심령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인들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수양(修養)이요, 취미라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수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과 싸우는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 싸우려면 무엇보다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좋아야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어떤 무기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적 무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은 우리를 가난

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원수죠. 그것들을 내쫓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칼로도, 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예수님도 성령을 받은 후에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을 진멸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도 무기가 지급될 때까지, 곧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행1:4).

여러분, 총을 보고
곰이 도망가는
게 아니죠.
총알이
나
가

야
도 망
가는 겁
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보고 귀신이 나가는 것
이 아니라 총알, 성령을 받아 예수이
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나가는 것입니다. 그
래서 총알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어떤
권능이냐? 바로 총알입니다. “믿는 자들
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이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과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
니다(요14:12). 왜냐? 예수님이 받은 성
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동일한 성
령이기 때문입니다. 총에 총알만 장전되
어 있으면 아이가 방아쇠를 당겨도, 노인이
당겨도 총알이 나가 적을 죽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성령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적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

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기도 합니다(요14:16~17).

‘보혜사’는 한자어인데, 지킬 보(保), 은혜혜(惠), 스승 사(師)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 분이셨다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무엇이 두렵고 망설여지겠습니까? 성령이 지키시고, 은

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
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갈 길을
에 비
하
사

넉
넉
히 이
기게 하
시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충
만함을 어찌 받습니까?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더욱이 방언으로, 즉 성령으로 계속 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를 왜 하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방언기도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요즘 비화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대통령과 그 아래 중직들이 비화폰으로 비밀대화를 나누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되고 도청도 안 됩니다. 방언기도가 하나님과의 비밀대화를 나누는 비화폰입니다. 악한 것들도,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언공작을 펼 수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또한 방언기도는 지뢰탐지기와 같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순간 터져서 신체 일부가 날아가기도 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

니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색출해야 합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망하게 하는 것들을 색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 40년 목회 인생에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은 방언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최소 4시간, 집회 때는 7시간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지키십니다. 또한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8:26~27).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그날 유독 방언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큰아들이 사당동 지하철역에서 내리다가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이의 말에 의하면 그 상황에 누군가 자기를 번쩍들어 올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아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방언기도를 하면 마음에 상쾌함이 옵니다(사28:11~12). 물을 끓이면 그 안에 있던 유해성분이 다 끓어올라 넘쳐 나가듯,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하면 내 안의 나쁜 것들이 다 넘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 내 몸이 상쾌해집니다. 제가 70이 넘는 나이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교회를 이끌고, 또 지구 반대편인 코스타리카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못하냐? 아침에 일어나 한 시간씩만 방언기도하고 나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해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방언기도를 하면 성령이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만사가 형통하며, 고통과 병과 가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고전12:10),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방언기도는 비밀을 여는 만능열쇠이다

문제가 있습니까? 빈 총인지, 빈 지갑인지 나를 점검해보십시오. 영혼이 잘 패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법, 방언기도로 성령충만함을 입으십시오. 만사형통(萬事亨通), 난사형통(難事亨通)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천성(天性)과 관성(慣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지난해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 나오는 대사다.

천성이라면 타고난 성격, 성향을 말한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 의해 익숙해져 몸 에 익어버린 관성. 사람은 보통 이 두 가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무릎을 치게 하고 뼈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대사라든가, 드라마 ‘갯속말’에 나오는 “악(惡)은 성실하다.”는 대사는 아직도 기억에 진하게 남아있다.

다시 천성과 관성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은 “습관이 생각보다 빠르다.”고 말씀하신다. 이미 내 몸에 관성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억지로라도 나를 다그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타고난 성향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관성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해오던 루틴대로 살아간다.

뉴턴 제1의 운동법칙, 곧 관성의 법칙이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물체뿐 아니라 사람도 환경 가운데 익숙해진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그 습관을 바꾸려면 외부의 힘이 강제하거나 스스로 뼈를

깨는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사님은 성령의 힘과 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나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잘라내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끊임없이 육체로부터 끌어오르는 소욕을 성령으로 제어하는 길은 오직 기도로 성령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

요즘 목사님은 유독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무시로 방언기도 하라고 강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이 주관하셔야 썩어져가는 구습, 그릇된 관성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성령충만, 이는 우리 인생의 성공뿐 아니라 우리 영생까지 담보하는 비밀 중의 비밀이다.

Henry Han

:: To Be Succeeded ::

전대미문의 축복으로 가는 길

우리 목사님은 ‘고난이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담’이라고 말씀하신다. 맞다. 나에게서는 자녀들 양육이 그중 하나다. 자녀를 양육하며 겪은 우여곡절의 시간, 아프고 다치고 반항하는 시간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고속도로이자, 또한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성장 촉진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모래사장 위에 찍힌 단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보며,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푸념하던 어떤 이에게, 주님께서 ‘저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은,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나에게도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셨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과 기도 처소를 향해 걷던 눈길,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귀를 막고 재촉해야만 했던 예배로의 발걸음,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작했던 가정예배,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분명 외롭고 고달팠지만, 지금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는 소망을 품게 하신다. 한마디로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친히 만들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대나무가 어둡고 차가운 땅속에서 4, 5년간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진 후에야 비로소 땅 위로 솟아 하루 30cm씩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처럼, 때로는 길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 믿음의 선전들의 인내와 고난의 본보기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다(약5:10~11).

전대미문의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써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걷는 이길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꽃길이 되어, 웃으며 주님을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국진 사모

터널과 동굴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산 3호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인데도 터널 내에서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컴컴한 터널 내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떨까 생각하자 순간 아찔했습니다.

한참 후,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속도라도 천천히 차가 움직임에 따라 멀리 환한 빛이 시야에 들어오자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지 동굴 속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출구가 나오는 잠시의 고난을 만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에 밀어 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을 한탄하고, 무서워하

여 터널에 주저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터널을 동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앞으로 나가면 출구가 있는데 마음의 큰 돌덩이를 굴려 출구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어두움에 익숙해진 박쥐가 되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터널 속을 걸을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터널 안에서 공명된 소리는 더욱 커서 주님의 귀전을 크게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걸으세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지만, 우리 발로 걸어 의지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찬란한 빛을 맞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태양은 저토록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웅달샘 중에서



:: 낮은 올타리 ::

영적 선진국

선진국들은 교통, 유통, 문화, 환경 등의 기초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시설은 위기가 왔을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놀랐던 것은 바로 서울의 제설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나라는 눈이 많이 오면 그날은 학교도, 회사도 모두 쉬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제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은 물론, 3일 동안 학교를 원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눈이 새벽에 아무리 많이 와도 출근 시간만 되면 모든 도로에 제설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서울 와서는 눈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기반 시설이 잘 닦여 있으면 문제가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반 시설을 잘 닦아놓아야 영적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위기가 되지 않고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영적 선진국 말입니다. 잘 닦인 기반 시설은 자연재해와 같은 고난이 와도 금방 회복되게 하고, 치안

이 좋아 마귀가 쉽게 틈타지 못하게 하고, 유혹에 흔들려도 버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유독 나의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게 느껴졌다면, 유독 여러 유혹과 고난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다면 내 신앙의 기반 시설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반 시설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영적 기반 시설에도 집중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반 시설을 닦아야 할까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바로 방언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방언과 성령 충만이 바로 신앙의 기반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반 시설을 닦을 수 있게 기도의 자리까지 마련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방법도 알려주시고 상황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닦아놓으신 훌륭한 선두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니 그 모습을 보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더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아 모두 영적 선진국을 이룹시다!

장수정

:: 성도간증 ::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수요일에배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날인 2일부터 노량진 교육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17일 금요일. 둘째 딸이 폐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

래 내일 동네 내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내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조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주안에 있는 인천사랑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확인해보니 폐에 물이 찼다고(기흉) 했습니다. 그래서 폐에 구멍을 뚫어 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빼냈습니다. 아비인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때부터 이틀 동안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인천 기도처와 노량진 교육관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하고 5일 뒤인 수요일 아침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 좋아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5일 만에 퇴원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고통에서, 흑암과 사망에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박훈희 집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1%의 영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뿐 아니라 송전기, 변압기, 계량기 등 현시대의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주변기기 대부분을 만들어내었다. 덕분에 타이피에 의해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이 명언을 인용하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명언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다.

한 잡지사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다. “당

신은 어떻게 이러한 업적들을 이루었습니까?”, 에디슨은 대답했다. “그야 99%가 노력이죠. 물론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었습니 다.”

99%의 노력은 너무 당연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짜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 라는 것이다. 에디슨은 영감 비슷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3,400권의 노트를 기록했다고 한다.

‘영감(inspiration)’은 내 안(in)에 하나님의 영(spirit) 들어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에디슨도 영감 비스무리한 것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천

재의 경지에 이르렀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두 친구를 소개해주셨다. ‘노력과 기도’.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뿌린 대로 거두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신다. 우리는 기도와 노력의 화학적 결합으로 영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또한 가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전대미문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으로 세상을 호령토록 노력과 기도로 2025년을 충실히 채워가고자 한다.

전호정 집사

2025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마감 2025년 2월 16일(주일) 문의: 02. 533. 9191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 유황, 몰약의 의학적 의미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물들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지만,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황금은 한의학에서 공진단과 같은 알약을 포장하는 금박으로 사용됩니다. 정제된 금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피부 상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황과 몰약은 나무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를 채취한 것입니다. 이들은 채취 과정이 어려워 값어치가 높았으며, 종교의식이나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향료가 약취를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높았을 것입니다.

유황은 산모의 진통 완화, 생리통 개선, 어혈 제거 등에 도움이 되며, 향기를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체 통증을 다스리고 상처치유를 돕습니다. 몰약 역시 유황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통증 개선에 주로 사용됩니다. 유황과 몰약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되어 혈액순환 촉진, 어혈 제거, 통증 완화, 피부 염증 개선 및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진통소염제가 개발되어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

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혈(딱한 피)과 스트레스는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며, 단순한 진통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 유황, 몰약은 이러한 어혈 제거와 스트레스 해소, 통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원인 치료로 작용합니다. 향기로 흡입하거나, 섭취하거나, 피부에 발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통한 치유의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Dr. 설재현 집사

:: 신앙에세이 ::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당겨받고 타지에서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린 후, 남의 집 종살이를 하다 철이 들어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 그리고 평소처럼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와 그 모든 상황을 접한 후 매우 서운해하는 큰아들.

‘잘해온 나에게는 잔치 한번 없더니 뒤늦게 철든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푸시다니...’ 뽀로통해 있는 큰아들에게 다가온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네 동생은 살아 돌아왔으니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읽다가 ‘내가 큰아들이라면?’이라고 생각하니 솔직히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었다. 아니, 주고 나서 말씀하시던지, 어떻게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것인가? 그럼 큰아들이 맘대로 다 써도 되나? 마음을 풀어주시려면 차라리 “애야, 내가 다음번에는 널 위해 더 큰 잔치를 베풀어줄 테니 오늘은 마음을 좀 풀어다오.” 하셨다면, 큰아들 마음이 더 잘 풀렸을 것 같다. 저 아버지는 요즘 말하는 MBTI 성격유형에서 T인 건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이야기를 다시 보니 이해가 되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을 정말 기뻐했던 주인. 열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매우 기뻐했던 여인. ‘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다시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면 너무나 기쁘단다. 너도 이 마음을 알아주련?’ 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체들은 믿음의 경쟁상대나 시샘과 질투의 대상이 아닌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박찬영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